

◀기쁜 우리 날들▶

어 린 시 절

박완서 “그 랫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누군가가 뒷간에 가자하면 똥이 안 마려워도 다들 따라가서 일제히 동그란 엉덩이를 까고 앉아 힘을 주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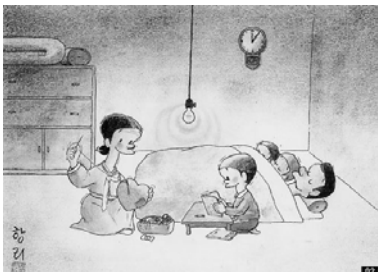
졸느런히 앉아서 똥을 누면서 하는 얘기는 왜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지, 가히 환상적이었다. 옥수수 먹고 옥수수같이 생긴 똥을 누면서 갑순네 누렁이가 새끼를 여섯 마리나 낳았는데 누렁이는 한 마리도 없고 검둥이하고 흰 바탕에 검정 점이 박인 것밖에 없으니 참 이상하다는 따위 하찮은 얘기가 그 어둑시근하고 격리된 고장에선 호들갑스러운 탄성을 지르게도 하고, 옥시글옥시글 재미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도 했다. 훗날 학생 입장 불가의 영화를 교복의 흰 깃을 안으로 구겨 넣고 보고 나와 세상의 밝음과 낮섬에 접할 때마다 나는 유년기의 뒷간 체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곤 했다.

뒷간도 재미있지만 뒷간에서 너무 오래 있다 나왔을 때의 세상의 아름다움은 유별났다. 텃밭 푸성귀와 풀쭈과 나무와 실개천에서 반짝이는 햇빛이 너무도 눈부시고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어 우리는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한숨을 쉬었다. 원가 금지된 쾌락에서 놓여난 기분마저 들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삼시 밥 외의 군것질거리와 소일거리를 스스로 산과 들에서 구했다. 빨기, 찔레순, 산딸기, 칩뿌리, 메뿌리, 싱아, 도토리가 지천이었고, 궁금한 입맛뿐이 아니라 어른을 기쁘게 하는 일거리도 많았다. 산나물이나 버섯이 그러했다.

마을 도처에 흐르는 실개천에서 물장구치며 놀 때도 누가 해진 체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오도방정떨기 선수인 보리새우를 얼마든지 건져 올려 저녁의 된장국을 구수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었다. 가지고 놀 것도 다 살아 있는 것들이었다. 왕개미의 새콤한 똥구멍을 훑아 보다가 불개미 떼들한테 종아리를 뜯어 먹히기도 했고, 잠자리를 잡아서 날씬한 콩지를 자르고 대신 더 긴 밀집 고갱이를 꽃아서 날려 보내기도 했다.

가지고 놀 것은 무궁무진했고 우리는 한 번도 어제 놀던 걸 오늘 또 가지고 놀 필요가 없었다.



◀그림 말씀▶ 가 족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방중에도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삼십 초 백열등 아래에서 어머니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구멍 난 양말도 낚고 헤진 내복도 낚고..... 그 안을 채운 것은 어머니의 정성이었습니다.

교 회 목 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전도: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의 증인됩니다 (눅 24:48)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 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2009 11권 1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9년 5월 3일
☎ 369-5077. St David's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A.M 오버튼



내가 가는 이 길이 흑 굵어 있더라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흑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까닭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겨려도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것 입니다.
가는 이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말씀 따라 행하기▶

믿음이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의
원인과 결과를 묻지 않고
무조건 신뢰하는 것

◀인품 따라 행하기▶

슬프도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았기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다 같이
*찬 송	36 장	
Hymn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Apostle's Creed		
찬 송	337 장	
Hymn		
기 도		권광순 권사
Pray		
성 경 봉 독	에베소서 6:4	인 도 자
Scripture Reading		
성가대 찬양		나무심자가 성가대
Choir		
설 교	아이도 자라면 어른	김성국 목사
Sermon		
찬 송	453 장	다 같이
Hymn		
헌 금 기 도		인 도 자
Offering Pray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응 답 송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esponse Song		
축 도		김성국 목사
Benediction		

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 3,073 총액:\$ 570,789.94

갈보리 성경 100독: 87독

◆5월 예배위원◆

◆5월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특 송	주차부	안 내
3	권광순	김수정	3구역		
10	김영길	김숙현	2구역	김광영	오지영
17	노은숙	김석록	1구역	조용일	임혜자
24	박일영	김윤숙	한나	최현철	*새교우:
31	백제성	김용석	바울		박수현

일자	주일 & 예배	모 임
3	어린이주일	구역예배(8)
10	어버이주일	
17		구역예배(22)
31	연합예배(St David's) 성령강림주일	

『2009 신앙생활』 전도: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의 증인됩니다 *이웃에게 친절 친절 그리고 또 친절 *교회출석 권유 *새교우를 외로움 느끼게 하지 않기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금,토 5:50 청년예배:주일 2:40pm

*나이가 들수록 탁류처럼 흐려지는 마음이어서 내 어린 날들을 되돌려 나를 닦아냅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으면서....

1.교우소식

<이사> 김광영,장태옥 집사 2A/20 Morning Star Pl. Mt Albert

2.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내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3.다음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루만이라도 꽃이 되어 부모님 가슴에 달려있고 싶습니다.

어머니 -박용하-

할아버지가 부러먹었다. 아버지가 부러먹었다
첫째아들이 부러먹었다. 둘째아들이 부러먹었다
첫째며느리가 부러먹었다. 둘째며느리가 부러먹었다
첫째손자가 부러먹었다. 둘째손녀가 부러먹었다

밥 번다는 이유로
평생 짠 값에 부러먹었다

회초리같이 가느다란 사람
암에 걸려 수술대 위에 걸려 있다

4.모임

(1)바울 남선교회: 예배 후 Tea Time을 같이 하면서 모입니다.

(2)피택자 교육:주일 오후 2:50분 <장소> 아동부실

5.결석자봉사 <일시> 9일(토) 오전10시 - 오후1:30분

6.선교회 MATE(박성천 목사) 회지:안내석에 비치되어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를 위해 나선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회입니다.

7.새벽기도회 <장소> 교회 사무실 <시간> 새벽5:50분

*금요일(North 교우) *토요일(South 교우)

◀한 줄로도 긴 생각▶

햇빛에 얼굴 타고 달빛에 그리운 마음 그을렸다
- 김 목사 -